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이 성 식* · 전 신 현**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대학생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의 주요 요인들로 차별접촉, 일상 긴장,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세 경우별로 그들 영향력이 상이한지를 알아보았다. 서울시 대학생 762명 대상의 조사에서 스마트폰 이용자 67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문자, SNS, 인터넷접속 모두의 경우에서 스마트폰 이용상 사이버불링자와의 차별접촉이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인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법위반 친구와의 차별접촉 요인은 SNS 이용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하여 차이를 보였다. 일상긴장의 요인들은 대체로 그 설명력이 낮았지만 학업긴장이 문자의 경우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는 문자와 인터넷접속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SNS에서는 유의미했다.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세 이용환경별로 사이버불링의 원인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증명되었다. 사이버불링의 원인이 단순한 문자나 SNS이용, 그리고 인터넷접속에 따라 왜 다른지를 논의했다.

❖ 주제어: 사이버불링, 스마트폰, 문자, SNS, 인터넷, 차별접촉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I. 서론

근간에 국내에서 관심을 갖는 연구는 사이버불링에 관한 주제이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매체를 통한 괴롭힘 혹은 폭력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국내 학자들의 경우 사이버언어폭력 연구(이성식, 2006)에서부터 사이버폭력(성동규외, 2006; 김경은·윤혜미, 2012), 사이버집단괴롭힘(전신현·이성식, 2012), 사이버불링(김봉섭, 2013; 남상인·권남희, 2013; 조윤오, 2013) 등 다양한 명칭으로 그 원인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통상 사이버불링이라 할 때에는 본래의 불링의 좁은 의미로 다수가 특정인을 괴롭히는 집단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소위 우리가 사이버폭력이라 일컫는 많은 행위를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 혹은 권익을 침해하는 인격권 침해행위로 단순한 욕설과 모욕에서부터, 명예훼손, 스토킹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사이버불링을 그와 같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앞서 제시한 기존 여러 국내연구들이나 최근의 국책기관의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한국정보화진흥원(김봉섭,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창호,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승현·노성호, 20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심홍진외., 2014)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주목했지 상대적으로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는 소홀했는데,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일탈의 가능성이 낮은 집단으로 평가되지만 실제로 20대가 인터넷이용율이나 사이버폭력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그 연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거에는 인터넷 이용자중심의 인터넷 게시판 악성댓글과 같은 연구주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이용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SNS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의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이 증가하여 그 양상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가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것은 대학생 스마트폰 이용자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모색함에 있어 이용환경으로 단순한 문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그리고 포털 등의 인터넷접속의 세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이는 이용환경에 따라 그 원인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위함인데, 세 경우별로 이용자가 서로 아는 사이 혹은 익명의 관계인지가 다르고, 그리고 사이버불링의 유형과 형태가 다를 수 있어 그 원인도 다를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처럼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환경을 위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서 사이버불링의 경험을 조사하고 그 원인파악을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의 주요 요인들로 차별접촉, 일상긴장,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을 적용함으로써 그 원인이 상이한지 여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대학생 대상의 연구라는 점, 스마트폰 이용자 연구라는 점, 그리고 세 이용환경에 따른 원인분석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고 경험연구를 통해 그 분석결과를 알아보고 그 결과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려는 데에 목적을 갖는다.

II. 사이버불링의 원인

1. 주요 요인들

가. 차별접촉

사이버불링의 원인은 무엇인가? 범죄원인 연구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범위반자와의 차별접촉과 그로 인한 범죄학습이다.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비행친구나 위반자와 접촉하면 범죄를 학습하게 됨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는데(Akers, 1985; Warr and Stafford, 1991), 실제로 일상긴장이나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도 결국 범위반자와 접촉하게 되고 그럼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수 있다.

범죄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은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여 온라인 사이버범죄에서 위반자와의 차별접촉은 외국 연구에서도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Skinner and Fream, 1997; Higgins et al., 2007), 국내에서

도 그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이성식, 2011; 김경은, 2013; 남상인·권남희, 2013).

사이버불링 연구에서도 차별접촉은 주요 요인이 되어, 김경은(2013)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자가 비행친구와 사귀게 되고 그로 인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사이버폭력 가해의 중요한 설명요인임을 제시했고, 남상인과 권남희(2013)는 사이버불링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 비행친구의 수가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제시해 비행친구와 사귀어 그로 인해 폭력을 용인하고 도덕적 죄책감이 낮은 학생이 온오프라인에 상관없이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는 주장을 했다.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상의 사이버폭력 연구(심홍진외, 2014)에서도 사이버폭력 친구가 많을수록 폭력을 가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나. 일상긴장

긴장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사이버불링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화를 분출하기 위해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Agnew(1992)는 일반긴장이론을 제시하면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긴장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인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 부정적 감정을 야기함으로써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고 이후 이러한 긴장이론의 논의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 왔다(Agnew, 2001).

그러한 일상긴장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범죄에도 잘 적용될 수 있는데, 오히려 현실 오프라인에서는 긴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로 표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온라인에서는 비대면 혹은 익명의 상황에서 아무 제약이나 제재없이 긴장을 쉽게 표출할 수 있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내 연구로 홍영수와 김동기(2011)는 긴장과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등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했는데, 긴장과 스트레스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제시했으며, 이성식과 전진현의 연구(2012)에서는 청소년대상 연구에서 학업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가 사이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사이버불링 연구로 중학생대상 인터넷게시판 악성댓글 연구에 따르면(이성식, 2009), 악성댓글 경험의 그 이유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26.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12.9%, ‘내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가 11.5% 등으로 나타났는데, 어찌보면 이러한 동기이유는 긴장과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사이버불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대표적 연구로 Patchin과 Hinduja(2011)는 일상긴장과 그로 인한 화와 좌절감이 사이버불링의 주요 동기이자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다. 낮은 자기통제력

개인적 특성에서 보면 사이버불링은 그것이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자기통제력이 낮거나 충동적인 사람들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일반이론(Gottfredson and Hirschi, 1990)에서는 대부분의 범죄가 즉각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고 어려서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이 폭력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은 오프라인 현실에서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Pratt and Cullen, 2000), 사이버범죄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Higgins, 2005; Buzzell et al., 2006; Malin and Fowers, 2009). 국내연구에서 정혜원(2010)은 청소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비행의 원인을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인터넷이용시간 등 세 이론의 요인들을 검증했는데, 모든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이 가장 크게 사이버비행을 설명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사이버불링도 그러한 성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의 성향의 사람들은 위와 같은 긴장 및 스트레스 등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누군가에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성식(2006)은 사이버폭력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다른 요인들보다도 오프라인 현실과 온라인 사이버폭력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고, 최근 남상인과 권상희(2013)의 연구에서도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폭력의 중요한 원인임을 제시하였다.

2. 스마트폰 이용환경과 세 요인들의 작용

가. 스마트폰 이용환경에 따른 사이버불링의 형태

현실기반의 범죄학이론의 주요 요인인 위의 차별접촉,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 사이버불링 연구들에서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지만 그와 같은 요인들은 모바일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 컴퓨터이용은 데스크탑 중심의 인터넷접속이 주요 용도였지만 스마트폰은 인터넷접속이외에 가까운 아는 친지와 연결과 소통이 주 기능이고, 또한 스마트폰은 휴대용기기로서 휴대하여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휴대이동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따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데스크탑 중심의 사이버 인터넷범죄에서는 사이버공간이 현실과 다른 가상공간으로 묘사되기도 하면서 그래서 기존 현실기반의 범죄원인들의 적용은 한계가 있고 새로운 원인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가까운 현실의 아는 사람과 접촉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이의 인터넷접속에서도 휴대이동성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현실기반 범죄원인들이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성식, 2014). 이처럼 스마트폰 환경의 사이버불링에서는 차별접촉,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환경을 단순한 문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그리고 인터넷접속의 경우로 구분해 볼 때 위의 세 요인들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세 이용환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지 혹은 익명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단순한 문자의 경우는 서로 아는 가까운 친지사이에서 사용된다. 반면 인터넷접속의 경우는 물론 아는 사이도 있지만 확장된 네트워크속에 서로 모르는 익명의 사이인 경우가 많다. SNS의 경우는 페이스북과 같이 대체로 서로 아는 사이에서도 교류를 하지만 모르는 사이인 경우도 있고 트위터인 경우는 모르는 사이가 더 많듯이 문자와 인터넷의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경우 그 원인이 다를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세 경우에 있어서는 사이버불링의 유형과 형태도 다를 수 있다. 서로 아는

사이의 문자의 경우는 물론 심각한 폭력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일상대화속의 가벼운 욕설의 경우가 많고 그것도 적대감의 표현보다는 가까운 사이끼리간의 친근한 표현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이버불링은 사소한 재미 혹은 놀이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모르는 사이의 인터넷이용의 경우는 어떤 연예인의 대한 비난과 악플의 공격형이거나 사회이슈를 갖고 논쟁을 하다가 서로 상반된 의견의 다툼에서 서로에게 욕설과 비방을 하는 논쟁형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반면 SNS 이용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과의 소통이외에 가까운 지인들과도 보다 긴밀히 연결된다. 이 경우 사이버불링과 관련해서 보면 아는 친구들끼리의 놀이형 및 모르는 사람과의 의견충돌의 공격형의 경우도 있고 집단괴롭힘에서 보듯이 배척형의 형태로 현실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세 요인들의 차별성

스마트폰 이용자의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세 경우에 있어서 앞서 세 요인들의 작용은 어떻게? 우선 차별접촉의 작용을 보면 인터넷접속에서는 기존 데스크탑 형태에서 이루어지던 확대된 네트워크의 낯선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으로 다양한 범위 반자와의 차별접촉의 기회는 많을지 몰라도 그 영향은 다소 낮을 수 있는데, 그것은 차별접촉의 학습과정이 보다 가까운 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 부모나 친한 친구로부터의 학습이 주요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듯이(Matsueda, 1982; Warr and Stafford, 1991), 서로 모르는 사이로부터의 학습영향은 낮고 그렇다면 인터넷접속의 경우보다 문자의 경우에서 그리고 SNS 등 아는 사람과의 교류에서 사이버불링 경험자와 접촉할 경우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모르는 관계의 인터넷 악성댓글 연구에서 차별접촉의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성동규 외., 2006; 이성식, 2006), 이성식과 박정선(2014)은 주로 서로 아는 사이의 문자폭력의 연구에서 차별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했으며, 윤해성과 박성훈(2013)의 SNS 이용상의 범죄연구에서는 여러 설명요인들 중에 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사회유대요인들보다도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중에는 휴대이동하고 다니면서 일상의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쉽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긴장의 영향력도 스마트폰 이용의 사이버불링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긴장은 서로 익명의 관계인 사이버공간에서 더 표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남수정, 2011). 그런데 가정과 학교에서의 긴장과 같이 현실기반 일상긴장은 현실에서는 몰라도 현실과 다른 사이버공간에서는 그 설명력이 적을 수 있다. 물론 긴장은 서로 모르는 익명의 관계에서 쉽게 표출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 일상긴장의 영역은 그것이 현실과 다른 가상의 공간이라고도 여겼던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인터넷이용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낮을 수 있다. 사실 기존 인터넷기반 사이버범죄연구들에서 긴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그 때문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스마트폰 이용에서 인터넷접속의 경우 일상긴장의 영향력은 낮을 것이고 인터넷접속의 경우보다 오히려 현실과 가까운 아는 사이의 문자이용의 경우에서 긴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시에는 휴대이동성으로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스마트폰 이용상에서 우발적 상황에서 즉각적이고도 충동적으로 사이버불링을 저지르기 쉽다. 더구나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의 안정적 성향은 그 관계가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에 상관없이 모두의 경우에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Gottfredson과 Hirschi가 일반이론을 제시할 때 낮은 자기통제력은 범죄기회가 많은 상황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후 연구들에서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지지되었다(Longshore, 1998; Hay and Forrest, 2008; 이성식, 2010). 세 이용환경의 경우에서 보면 인터넷접속과 같이 서로 모르는 익명의 관계에서 범죄기회가 높다고 본다면 문자나 SNS 경우보다 인터넷접속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낮은 자기통제력의 범죄에의 작용은 사회학습과정의 높은 곳에서 더 작동한다는 주장도 있어(Longshore and Turner, 1998; Higgins et al., 2007; 이성식, 2011), 차별접속의 영향력이 더 높은 서로 아는 사이인 문자이용의 경우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다.

Ⅲ. 연구문제와 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의 설명요인으로 차별접촉, 일상긴장,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을 제시하고 이 요인들이 사이버불링을 잘 설명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의 이용환경에 따라 그 요인들이 상이하게 작용할지를 알고자 한다. 이에 스마트폰 이용환경을 문자, SNS, 인터넷접속으로 크게 셋으로 나누고 각 경우에서의 위의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접촉으로부터의 학습과정은 가까운 아는 사이에서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 익명사이인 인터넷접속의 경우보다는 문자이용의 경우에서 사이버불링자와 접촉할 경우 그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불링자와의 차별접촉은 문자이용의 경우에서 그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SNS, 그리고 인터넷접속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환경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불링자와의 차별접촉이외에 흔히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현실에서의 친한 친구 중 위반자가 있는지의 차별접촉요인을 또한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는 서로 아는 사이인 문자의 경우에서 그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예측하며, 인터넷접속의 경우는 현실의 영향력이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 친구와의 차별접촉요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가정이나 학업 등에서의 현실기반 일상긴장의 영향력은 아는 사이의 현실기반에 가까운 문자이용의 사이버불링에서 그 영향력이 클 수 있다. 그러나 긴장의 영향은 서로 익명의 관계에서 더 표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 보면 인터넷접속의 경우에서 더 높을 수도 있다. 즉 긴장의 영향은 문자의 경우 클 것이지만 인터넷접속의 경우에서도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낮은 자기통제력도 그것이 현실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서로 아는 사이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 경우 모두에서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접속의 경우에서처럼 서로 모르는 익명의 기회가 높을 때 그 영향력이 클 수

도 있지만 문자의 경우에서처럼 서로 아는 사이인 학습여건이 높은 곳에서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낮은 자기통제력은 문자 혹은 인터넷접속의 경우 모두에서 클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이버불링자와의 차별접촉 및 현실 위반자 친구와의 차별접촉은 문자, SNS, 인터넷접속 세 경우 중 어디에서 사이버불링에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연구문제 2: 가정과 학교에서의 긴장은 문자, SNS, 인터넷접속 세 경우 중 어디에서 사이버불링에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연구문제 3: 낮은 자기통제력은 문자, SNS, 인터넷접속 세 경우 중 어디에서 사이버불링에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서울시 재학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여부를 질문하고 이용시 문자, SNS, 인터넷접속 그리고 그외 중 주로 어떤 용도와 환경에서 이용하는지를 묻고 각 경우에서의 사이버불링 경험이나 관련 질문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 집단별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하도록 한다. 이 조사는 서울시 동서남북 지역별로 두 개씩의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총 8개의 학교를 선정했으며, 각 학교에서는 자연/이공계와 인문사회/경상계 학생이 절반씩 표집되도록 했다. 조사는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학교 100여명씩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불성실한 응답 38부를 제외한 762중에서 스마트폰 이용자 672명을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이버불링은 전체 및 위의 이용환경별로 1) 단순욕설, 2) 명예훼손/비방, 3) 허위사실/유언비어유포, 4) 집단괴롭힘, 5) 협박/위협, 6) 스토킹 등 여섯개의 항목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 여부를 질문하여 최종적으로는 여섯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독립변인으로 다룰 요인으로 우선 스마트폰이용상의 사이버불링자와의 차별접촉

은 스마트폰 이용에서 주 이용용도를 질문하고 “위의 주 이용용도상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 위의 여섯 항목에서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에, 그리고 현실에서의 범위반자 친구와의 차별접촉은 “가깝게 지내는 친구 중 오프라인에서 불법행위를 한 적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없다’와 ‘있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일상긴장요인으로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긴장과 학업긴장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부모와의 긴장은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 “부모님과 나는 마음이 안 맞는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한다” 등 세 문항을 5점 척도로 ($\alpha=.881$), 학업긴장은 “나는 학교에 잘 적응 못한다”, “나는 학교가기가 싫다”, “나는 학업에 흥미가 없다”의 세 문항을($\alpha=.756$)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의 연구에 의거하여(Grasmick et al., 1993),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활동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특성에 대해 두 문항씩의 질문을 하였는데, 예컨대 충동성으로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와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생각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한다”와 같이 두 문항을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총 열 두개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alpha=.846$).

본 연구에서의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인으로 성은 여성(=0)과 남성(=1)을 더미화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연령은 태어난 연도를 묻고 연령으로 다시 코딩하였으며, 경제수준은 주관적 수준으로 ‘하’에서부터 ‘하중’, ‘중’, ‘중상’, ‘상’에 이르는 다섯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분포에서 전체 응답자 672명 중 남성이 402명(59.8%), 여성은 270명(40.2%)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8-29세 분포에서 평균연령은 21.933세였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은 5점척도에서 평균 3.290으로 ‘중’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 독립변인으로 우선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자와의 차별접촉 경험자는 27명으로 4%로 낮은 편에 속했고, 현실 위반자 친구가 있는지는 60명(8.9%)이 위반자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긴장요인들로 부모긴장은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6.570, 학업긴장은 6.882로 대체로 그 점수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범위에서 평균값이 33.36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으로 사이버불링은 여섯 항목을 합산한 결과 0-6범위에서 평균값이 .255로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명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	남 성	402	59.8			
	여 성	270	40.2			
연령				21.933	2.343	18~29
경제수준				3.290	0.831	1~5
사이버불링자 차별접촉	없 음	640	95.2			
	있 음	27	4.0			
	무응답	5	0.7			
현실친구 차별접촉	없 음	612	91.1			
	있 음	60	8.9			
부모긴장				6.570	2.360	3~15
학업긴장				6.882	2.281	3~15
낮은자기통제력				33.365	6.911	12~60
사이버불링				0.255	0.687	0~6

<표 2>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의 항목별 경험을 제시하는데 전체 대상자 뿐만 아니라 세 이용환경별로 그 결과를 제시한다. 사이버 항목으로는 단순욕설이 가장 많았는데 경험자는 7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4%가 경험했으며, 그 외의 항목의 경우는 경험자가 7명(1%) 등으로 대체로 매우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본 조사에서는 세 경우의 이용에서 문자는 208명, SNS는 201명, 인터넷접속은 200명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사이버불링의 결과를 세 이용환경별로 보면 단순욕설의 경우는 경험자가 SNS에서 15.1%, 문자 12.2%, 그리고 인터넷접속에서 8.0%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경우에서도 적은 빈도로 거의 유사했지만 SNS에서가 1-2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대학생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의 경험자는 적었고 심각한 행동보다는 사소한 욕설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사이버불링 항목 빈도분석

		빈도(%)			
		전체	문자	SNS	인터넷
단순욕설	없음	547(81.4)	169(82.0)	157(78.9)	170(85.0)
	있음	77(11.4)	27(12.2)	30(15.1)	16(8.0)
	무응답	48(7.1)	12(5.8)	12(6.0)	14(7.0)
명예훼손/ 비방	없음	658(98.9)	202(98.1)	194(97.5)	196(98.0)
	있음	7(1.0)	2(1.0)	3(1.5)	2(1.0)
	무응답	7(1.0)	2(1.0)	2(1.0)	2(1.0)
허위사실/ 유언비어유포	없음	655(98.9)	201(97.6)	195(98.0)	194(97.0)
	있음	7(1.0)	2(1.0)	3(1.5)	2(1.0)
	무응답	10(1.5)	3(1.5)	1(0.5)	4(2.0)
집단괴롭힘	없음	660(98.2)	202(98.1)	196(98.5)	196(98.0)
	있음	4(0.6)	1(0.5)	2(1.0)	1(0.5)
	무응답	8(1.2)	3(1.5)	1(0.5)	3(1.5)
협박/위협	없음	660(98.2)	202(98.1)	196(98.5)	196(98.0)
	있음	4(0.6)	1(0.5)	2(1.0)	1(0.5)
	무응답	8(1.2)	3(1.5)	1(0.5)	3(1.5)
스토킹	없음	663(98.7)	203(98.5)	197(99.0)	197(98.5)
	있음	2(0.2)	1(0.5)	1(0.5)	0(0.0)
	무응답	7(1.0)	2(1.0)	1(0.5)	3(1.5)
계		672	208	201	200

〈표 3〉 사이버불링의 설명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불링	
	b	β
남 성	0.068	0.048
연 령	-0.014	-0.049
경제수준	-0.020	-0.024
사이버불링자차별접촉	1.828***	0.517
현실친구차별접촉	0.173*	0.072
부모긴장	-0.016	-0.053
학업긴장	0.004	0.013
낮은자기통제력	0.012***	0.122
R제곱	0.326	
F값	38.783***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이전에 전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의 설명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명요인들은 스마트폰에서의 사이버불링을 잘 설명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을 보면 32.6%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F값도 38.783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사이버불링의 설명요인으로는 차별접촉요인으로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자와의 접촉이 $p < .001$ 수준에서 강하게 설명했고 베타값도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이용상에 사이버불링 경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자기통제력이 낮은 응답자가 사이버불링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베타값은 .122였다. 현실에서 범위반자 친구가 있는지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비록 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에 위반자 친구가 있는 응답자가 사이버불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긴장요인으로 부모긴장과 학업긴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아울러 사회배경요인으로 성, 연령, 경제수준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제시하지 못했다.

〈표 4〉 세 이용환경별 사이버불링의 설명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불링					
	문자		SNS		인터넷	
	b	β	b	β	b	β
남성	0.246**	0.174	0.031	0.020	0.051	0.044
연령	-0.013	-0.045	-0.030	-0.092	0.005	0.018
경제수준	-0.046	-0.044	-0.015	-0.018	0.060	0.084
사이버불링차별접촉	2.061***	0.583	1.208***	0.332	1.950***	0.621
현실친구차별접촉	0.110	0.035	0.456**	0.204	0.132	0.170
부모긴장	0.010	0.032	-0.019	-0.061	-0.016	-0.067
학업긴장	0.048*	0.146	-0.038	-0.119	0.029	0.115
낮은자기통제력	0.001	0.006	0.029***	0.256	0.003	0.031
R제곱	0.403		0.292		0.442	
F값	16.380***		9.243***		18.494***	

주: * p<.05; ** p<.01; *** p<.001

<표 4>는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연구문제로서 세 이용환경별로 사이버불링의 설명요인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을 제시한다. 그 결과를 보면 문자, SNS, 인터넷접속 모두의 경우에서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자와의 차별접촉이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인 것을 제시해 모두 p<.001수준에서 유의미했고 베타값도 가장 높은 것을 나타냈다. 이는 서로가 아는 사이인 문자의 경우에서 차별접촉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결과였다. 한편 현실에서 범위만 친구가 있는지의 현실 차별접촉요인은 SNS 이용의 경우에만 p<.01수준에서 유의미했고 문자와 인터넷접속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서로 모르는 익명의 관계이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인터넷접속의 경우 현실 위반자친구와의 차별접촉이 영향력이 약할 것이라는 결과는 예측과 일치했다. 하지만 문자의 경우 아는 사이의 관계임에도 현실 친구의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실 위반자의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문자에서 사이버불링 가능성이 높은 면도 있지만 문자의 경우는 단순 욕설의 경우라도 아는 사이의 사소한 장난 혹은 친근한 표현의 욕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범위만 친구가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일상긴장의 요인들 중 부모긴장은 세 이용환경별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지만 학업긴장은 차이를 보여 문자의 경우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인터넷접속의 경우나 SNS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현실 일상긴장의 영향력은 현실기반에 가까운 문자이용의 경우에서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긴장의 영향이 인터넷이용의 익명의 관계에서 더 표출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하지 않았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는 세 경우 모두 작용할 것이고 기회가 높은 인터넷접속이나 학습가능성이 높은 문자의 경우에서 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문자와 인터넷접속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SNS에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어찌보면 인터넷접속이나 문자 환경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작용할 수 있는 두 요건, 즉 기회와 학습의 상황이 반대여서 서로 상충되어 그 영향이 낮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SNS경우가 두 요건이 함께 성립되는 점에서 그 영향이 높은 것임을 짐작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배경변인들로는 현실과 가까운 문자의 경우에서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여 남자가 사이버불링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연령이나 경제수준은 세 이용환경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V.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의 주요 요인들로 차별접촉, 일상긴장,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이용환경별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경우에서 그들 영향력이 상이한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문자, SNS, 인터넷접속 모두의 경우에서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자와의 차별접촉이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인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가 아는 사이인 문자의 경우에서 차별접촉 학습과정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세 경우 모두에서 차별접촉의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

자나 SNS 경우에서처럼 주위 아는 친구로부터나, 그리고 인터넷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이용자들로부터도 모두에서 사이버불링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차별접촉 그리고 인터넷 혹은 주변문화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시해 왔는데, 이 결과는 이용환경에 상관없이 주위 위반자와 문화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현실에서의 범위반 친구와의 차별접촉 요인은 SNS 이용의 경우에만 유의미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터넷접속 처럼 서로 모르는 사이의 관계에서는 현실 위반자친구의 영향력이 낮다는 점, 그리고 문자의 경우는 친한 사이끼리의 사소한 친근한 표현으로서 욕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반자 친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로 해석했다.

일상긴장의 요인들은 대체로 그 설명력이 낮았지만 학업긴장의 경우에서 이용환경별로 차이를 보여 문자의 경우에서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현실 일상의 긴장은 현실기반의 문자이용의 경우에서 더 큰 것으로 해석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는 문자와 인터넷접속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SNS에서 유의미했다. 이는 SNS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작용할 수 있는 두 요건으로 기회와 학습이 모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세 이용환경별로 사이버불링의 원인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증명되었다. 이는 사이버불링의 원인이 세밀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단순한 문자나 SNS이용, 그리고 인터넷접속에 따라 그 원인이 다르고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 경우가 서로 아는 사이인지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출발했지만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이버불링의 케이스를 많이 발견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대학생 대상의 연구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처럼 이용환경별 원인차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더 논의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그러한 연구들을 기억하면서 좀 더 세부적 분석과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경은(20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비행친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9(4): 133-159.
- 김경은·윤혜미(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련성. 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봉섭(2013). 국내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와 주요 영향 요인.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봉섭·이원상·임상수(2013).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 남상인·권남희(2013).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남수정(2011).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와 익명성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9(2): 63-74.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19: 70-129.
- 심홍진·한은영·박병선·박남기(2014).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동기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해성·박성훈(2013).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이성식(2006).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 18(2): 421-440.
- 이성식(2009).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시판 악성댓글의 동기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3): 191-212.
- 이성식(2011). 청소년의 온라인 저작물 불법다운로드행위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의 영향 및 상호작용효과. 청소년학연구 18(10): 123-142.
- 이성식(2014).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일탈 설명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이용자의 비교. 형사정책 26(3): 265-285.
- 이성식·박정선(2014). 청소년 모바일메체 이용상의 문자폭력 원인: 세 주요 요인들

- 의 통합적 모색. 한국범죄학 8(3): 3-29.
- 이성식·전신현(2012). 인터넷사용, 일상긴장, 비행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23(3): 293-318.
- 이승현·노성호(2014). 청소년 따돌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창호(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신현·이성식(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집단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청소년학연구 17(11): 159-181.
- 정혜원(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비행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 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263-288.
- 조운오(2013). 신사이버불링 유형과 문제점. 학교폭력 2.0: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201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홍영수·김동기(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사이버비행의 구조적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127-148.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 319-61.
- Akers, R.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2nd. Belmont, CA: Wadsworth.
- Buzzell, B., Foss, D. and Middleton, Z. (2006). Explaining Use of Online Pornography: A Test of Self-Control Theory and Opportunities for Devia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13: 96-116.
- Gottfredson, M.R.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y, C. and Forrest, W. (2008). Self-Control Theory 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The Case for a More Systematic Union. *Criminology* 46(4): 1039-71.
- Higgins, G.E. (2005). Can Low Self-Control help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Software Piracy Problem? *Deviant Behavior* 26: 1-24.
- Higgins, G., Fell, B. and Wilson, W. (2007). Low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in Understanding Student's Intentions to Pirate Movi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5(3): 339-357.
- Longshore, D. and Turner, S.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Cross-Sectional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5: 281-98.
- Malin, J. and Fowers, B. (2009). Adolescent Self-Control and Music and Movie Pira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 718-722.
- Matsueda, R.L. (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489-504
- Patchin, J.W. and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and Society* 43(2): 727-751.
- Pratt, T.C. and Cullen, F.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64.
- Skinner, B.F. and Fream, A.M. (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Analysis of Computer Crim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495-518.
- War, M. and Stafford, M. (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 What They think or What They do? *Criminology* 29: 851-866.
- Willard, N.E. (2006).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Eugene, OR: Center for the Safe and Responsible Internet Use.

An Study on the Causes of University Students' Cyber Bullying: Three Smart Phone Uses of Texting, SNS, and Internet

Lee Seong-sik* · Jun Shin-hyu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offenders, strains, and low self-control in exploring causes of university smart phone user's cyber bullying. This study focuses on how those effects are different across three cases of smart phone use: texting, SNS, and internet. Analysing 672 smart phone users among 762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online offenders in cyber bullying is the most strong factor in explaining cyber bullying in all three cases. However, the effec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offline offenders is significant in only SNS users among three cases. It is also found that the effects of strain factors are small, but the effect of strain in academic activities is small but significant in texting users. In addition, low self-control is important in explaining only SNS user's cyber bullying.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auses of cyber bullying are different across three cases of smart phone use. This study explains why those results may be appeared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those results.

❖ Keyword: Cyber bullying, Smart phone, Texting, SNS, Internet, Differential Association

투고일: 8월 24일 / 심사일: 9월 21일 / 게재확정일: 9월 21일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 Professor,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